

한-사우디 미래 첨단산업 비즈니스 협력 강화

- 산업부 후원, 「2026 한-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」 개최
- 양국 주요 기업 참석하여 인프라·에너지분야 협력 고도화, 전기차, AI, 헬스케어, 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논의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후원으로 10월 6일(화) 서울에서 「2026 한-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」이 개최되었다.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인프라·에너지 등 분야의 고도화와 함께 전기차, AI, 헬스케어,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사우디*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내 우리와의 경제 협력 핵심 파트너로, 금번 포럼은 사우디의 「비전 2030」 국가 전략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경제 다각화 관련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다. 이에 동 포럼에서는 첨단산업, 통신·미디어·헬스케어, 유틸리티·자원·물류, 특구개발·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별 투자 제안 설명과 1:1 상담회를 진행하여 양국 기업 간 실질적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·논의하였다.

* 국내 원유도입량 1위, 중동 국가 중 GDP 규모 1위 및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

사우디 측에서는 Ceer(사우디 최초 전기차 회사), STC(사우디 최대 통신사), SAMI(사우디 국영 방산기업) 등을 비롯한 각 분야 주요 기업 약 20개사가 참석하였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향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약 90개사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.

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“한국과 사우디가 구축해 온 견고한 신뢰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혁명, 보호무역이라는 복합적인 도전

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”이라며, “AI 전환을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, 양국 기업의 교역과 투자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한-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중엽	(044-203-5720)
		담당자	서기관	안근영	(044-203-5726)



참고

「한-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」 개요

- 행사명: 2026 한-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
(2026 Saudi-Korea Business and Investment Forum)
 - 일시 · 장소: '26.10.6(화) 10:00~17:00, FKI타워 컨퍼런스센터^{1층}
 - 주최 · 주관: (韓) 한경협, (沙) PIF
 - 후원: (韓) 산업통상부
 - 참석자: 양국 기관 · 단체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총 250여명
 - (韓) 한경협 상근부회장 및 주요 기업인 등 200여명
 - (沙) PIF* 전략협력담당 임원 및 관련 주요 기업인** 등 50여명
- * Public Investment Fund(사우디 국부 펀드)
- ** CEER(沙최초 전기차 생산업체), SAMI(沙국영 방산기업), STC(沙최대 통신사), SGP(Saudi Global Ports, 沙동부 해안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) 등 임직원
- 세부 프로그램

※ 한-영 동시통역

시 간		주요 내용		비 고
10:00~10:15	15'	개회사(한경협, PIF) → 영상 축하(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)		공개
10:15~10:50	35'	PIF 소개 및 사우디 투자진흥청 발표		
10:50~11:25	35'	(피칭1) 특구개발 · 건설	(피칭2) 통신 · 미디어 · 헬스케어	비공개
11:25~12:00	35'	(피칭3) 유틸리티 · 자원 · 물류	(피칭4) 첨단산업	
12:00~13:00	60'	네트워킹 오찬		
13:00~17:00	240'	1:1 상담회		